

주 제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송관호

차 례

I. 서론

II. 인터넷 이용현황

III. 차세대 인터넷 환경의 발전방향 고찰

IV. 정보화 역기능의 실태

V.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 및 과제

VI. 맺음말

I. 서론

2005년은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한번 각인시키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컨버전스화로 대변되는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IMD 국가경쟁력 지수 중 IT부문이 포함된 '기술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1월 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f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발표된 디지털기회지수(DOI : Digital Opportunity Index)에서 미국, 일본, 덴마크 등 40개국의 평가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산 APEC 정상회의를 통해 Wibro, 알버트 휴보 로봇, DMB 등 첨단 IT제품들을 시연함으로써 각국 정상과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는 순수 국내 기술인 WiBro를 국제표준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5년은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과 성숙한 인터넷 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한해이기도 했다. 연예인 X-파일, 개똥녀 사건, 피싱·파밍 등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마녀사냥식 여론재판, 금융사기와 같은 역기능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첨단 기술의 개발과 도입,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 양적 성장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지난 10여년간의 정보화 정책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 국가로서 이에 부합하는 인터넷 이용환경과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디지털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I. 인터넷 이용현황

2.1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4년 13만 8,000명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5년 6월 현재 3,257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도입 초기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인터넷 이용률은 2002년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의 신규 진입층은 감소하고, 장기간 이용하는 활용층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터넷 이용이 점차 안정적인 양상을 갖춰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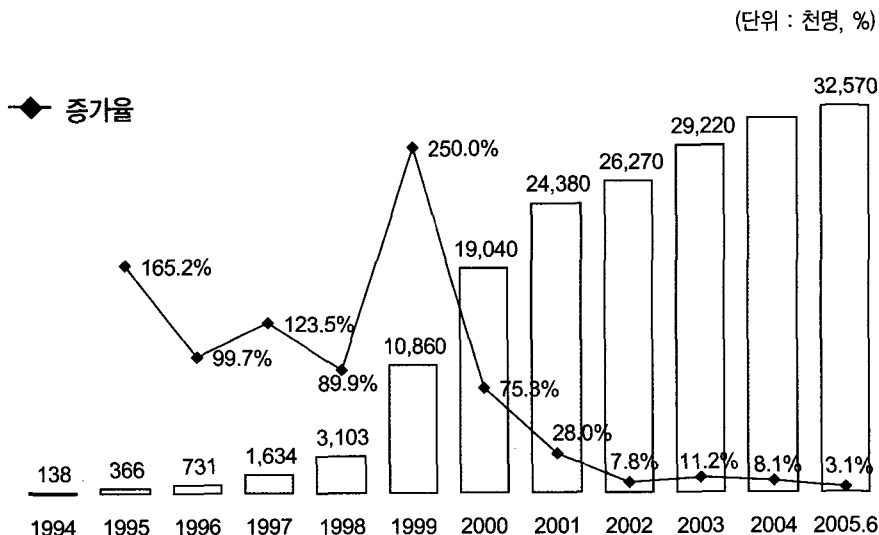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대부분 자료 및 정보 획득(93.8%)과 음악·영화·게임 등 여가활동(90.8%), 이메일·채팅 등 커뮤니케이션(90.4%)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쇼핑·예약, 전자민원, 홈피·블로그,

동호회, 금융거래, 교육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9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 97.2%, 30대 89.8%, 40대 67.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이 본격적인 경제 인구가 되는 10~20년 후에는 전국민의 인터넷 이용자화가 가능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성별, 학력별, 소득별 등 정보격차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가능하다.

2.2 초고속 인터넷 가입현황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998년 1만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연평균 164% 증가폭을 기록하며 2005년 11월 현재 1,2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ITU가 발표한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



자료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2005. 6)

(그림 1)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률 변화 추이

써 '인터넷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초고속망 구축 및 ISP 등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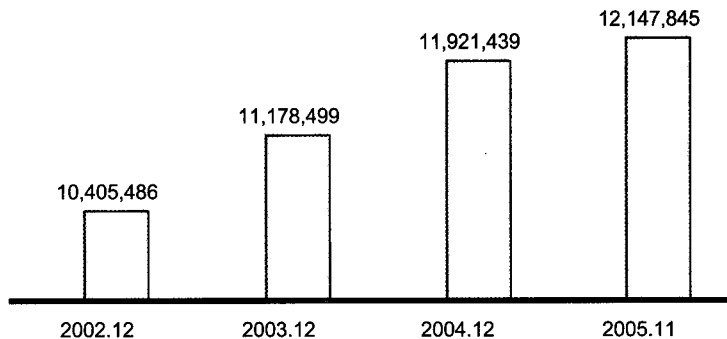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순증율의 50%이상을 차지하면서 성숙 단계의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향후 유선망에서 방송과 초고속 인터넷, 전화 등 3가지 서비스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가 개시될 경우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정부의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대사업'이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될 경우, 현재 97%인 초고속망 홈패스율¹⁾이 1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3 KR도메인 등록현황

우리나라 국가코드최상위 도메인(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인²⁾ KR 도메인의 등록건수는 1993년 61건에 불과하였으나, 본격적인 대국민 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9년 말 207,023건을 기록한 이후 2000년말 517,35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다소 감소했던 KR도메인 등록건수는 등록 대행 경쟁체제를 도입한 2002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8월 한글도메인(한글.kr)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2월 현재 642,770개를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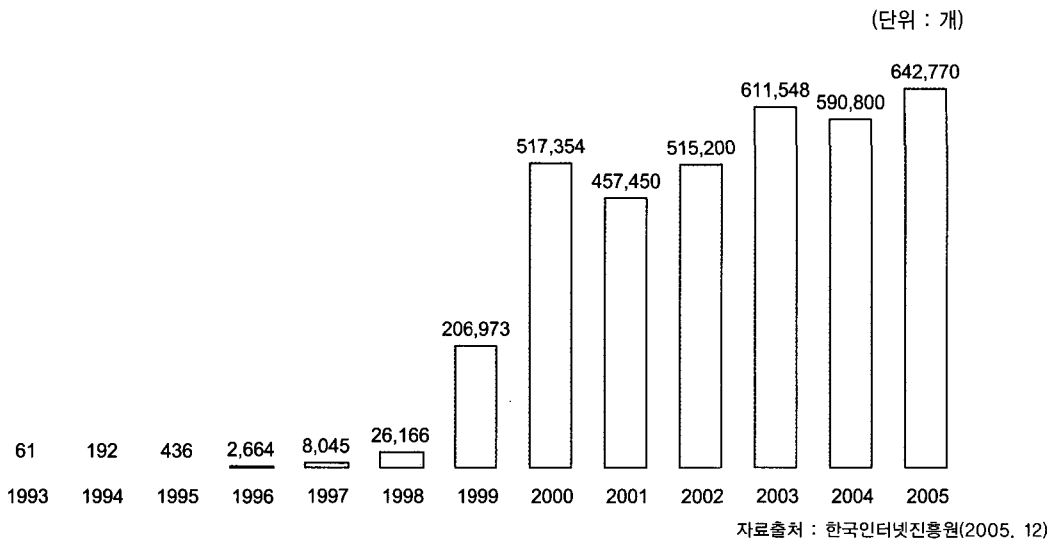
지난해 말 영문 KR 2단계 도메인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중 기존 3단계 도메인에 추가해 2단계 도메인(정통부 www.mic.kr, 한국인터넷진흥원 www.nida.kr)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KR도메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 정보통신부(2005. 12)

(그림 2)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현황

1) 사용자가 신청하면 즉시 개통이 가능한 초고속망 구성 비율
 2) 전 세계적으로 244개의 국가코드최상위 도메인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190여개가 실제 도메인 등록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영문약자 KR로 표기되는 KR도메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등록·관리 업무는 현재 인터넷주소자원예관한법을 제9조(2004년 1월 제정)에 의거해 한국인터넷진흥원(NIDA)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연도별 KR도메인수 변화 추이

III. 차세대 인터넷 환경의 발전방향 고찰

이제 우리는 모든 컴퓨터를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하던 인터넷 시대를 지나 한 사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 및 기기를 동시에 이용하고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이 가능해지는 지능기반사회, 즉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5년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IT839 정책의 크고 작은 성과들이 가시화되면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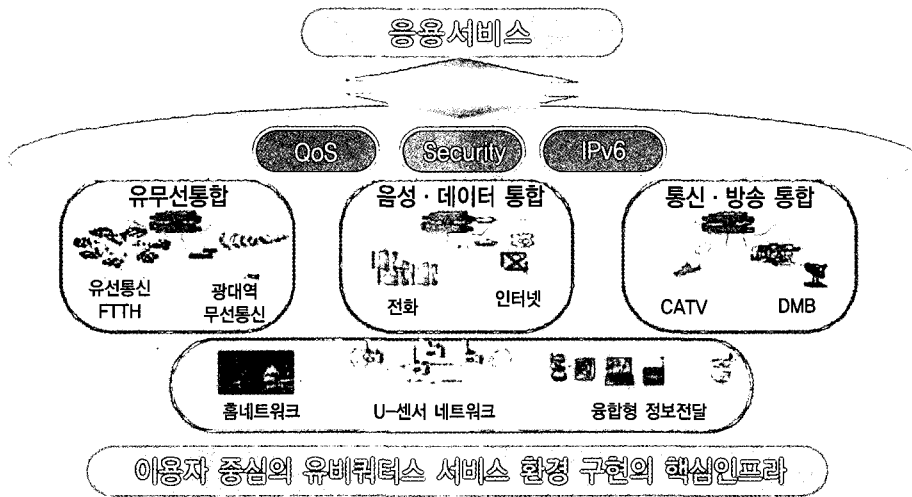
본 단락에서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의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인터넷 환경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3.1 BcN(광대역통합망)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은 통

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seamless)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및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 영상전화, 양방향 TV, 대화형 e-러닝, 원격진단 등의 첨단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 및 홈네트워크 등과 연계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 제공을 위해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10월 통신·방송·장비 솔루션 등 관련 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BcN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5년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광대역 통합망(BcN) 구축이 본격화되어 가입자가 312만명에 이르렀으며, 2010년까지 2,000만 유·무선 가입자에게 50M~100Mbps급 광대역통합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4) BcN(광대역통합망) 개념도

3.2 Wibro(휴대인터넷)

Wibro는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 속도로 끊임없는 초고속 무선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이동통신망의 높은 요금과 초고속 인터넷 및 무선랜의 이동성을 보완한 차세대 인터넷의 핵심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Wibro 환경에서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이동전화, Wibro,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다중모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의 무선인터넷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소비자 편의 증진 및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이용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최초로 시범서비스에 성공한 바 있으며, 12월 국제전기전자학회(IEEE)에 의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Wibro는 2006년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분기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7년 가입자가 132만~240만에 이르고 2010년에는 800만명을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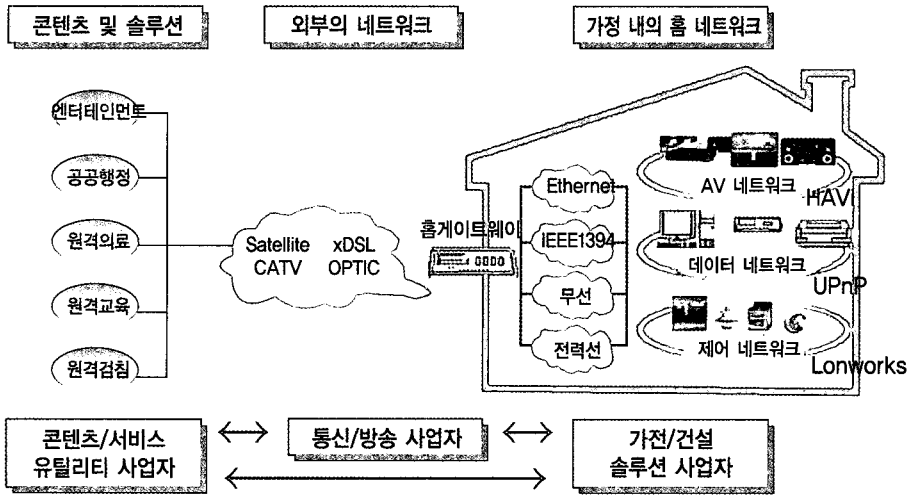
어서며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3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모든 정보가전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누구나 기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홈오토메이션, 원격의료, 원격교육, 원격검침 등 미래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환경으로, 가정을 쾌적하고 편리한 정보생활공간으로 변모시켜 풍요로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3년부터 KT,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주사업자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중으로 건설·전자 등 관련업체들도 신규 아파트 시장 등을 중심으로 홈네트워크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홈네트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2004년 88만5천 가구에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보급한데 이어 2005년 5월 현재 115만 가구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5) 홈네트워크 구성도

매년 2배가량 보급을 증가시켜 2007년까지 전체가구의 61% 수준인 10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 텔레매틱스

텔레매틱스(Telematics)는 위치정보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교통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다. 유·무선 통신 및 방송망을 통해 차량을 사무실과 가정에 이은 제3의 인터넷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이며(모바일 오피스화), 향후 차량 내부 단말기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결된 가전제품과 조명, 가스밸브 등의 기기를 일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텔레매틱스(홈네트워크+텔레매틱스) 또한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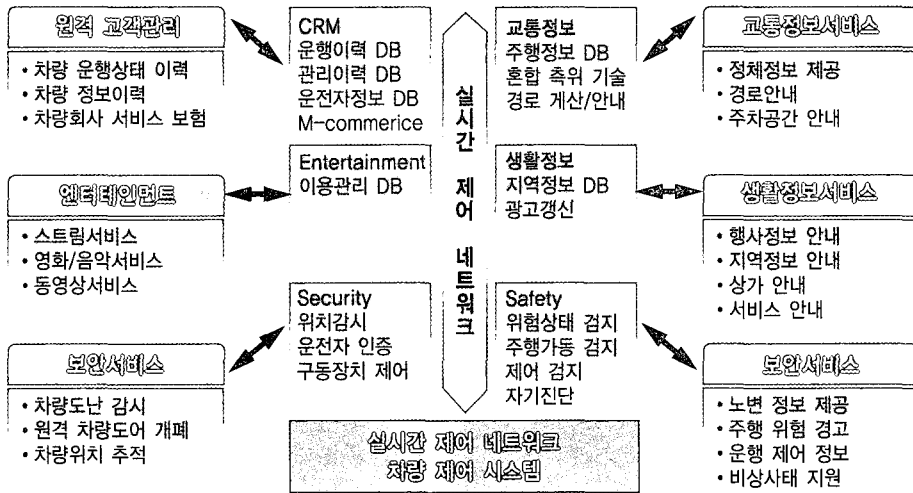
텔레매틱스 서비스 가입자는 2004년 기준 25만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W-CDMA, Wibro 및 DMB

활성화, 레저활동의 증가 등으로 2007년에는 약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5 VoIP(인터넷 전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는 음성신호를 기존의 회선교환망(Circuit Network)이 아닌 인터넷망(IP Network)을 통해 패킷 단위로 전송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음성 등을 송·수신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화 서비스이다. 이동성이 보장되어 실내에 국한되는 유선전화와 실내외 모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전화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내·외 지역구분이 없고 요금이 저렴하며, 음성, 데이터, 화상 등 통합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특징을 갖는다. VoIP는 향후 화상통화, 멀티미디어 및 결제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를 접목시켜 편리한 통신환경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11월 본



(그림 6) 텔레매틱스 서비스 개요

격적인 상용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2006년 86% 가량 급성장하여 37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2008년에는 80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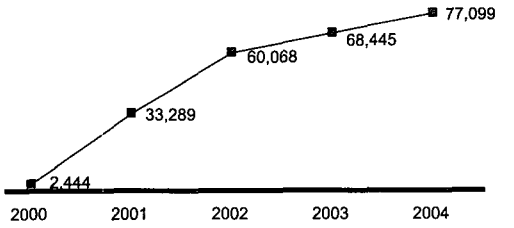
IV. 정보화 역기능의 실태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단계로 진입 하면서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누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정보격차,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해킹·바이러스 피해, 사이버 범죄, 불건전 정보유통, 인터넷 중독 등 각종 역기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에도 해킹에 의한 거액 인출 사건, 피싱·파밍을 통한 금융사기,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등 크고 작은 이슈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보화 역기능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 현상들은 인터넷 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하기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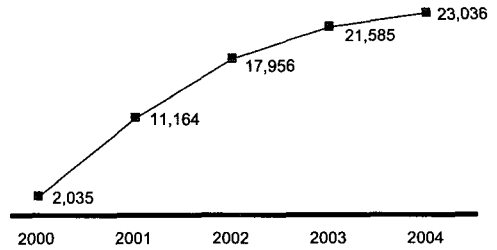
전체적인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기준 총 77,099건으로 2000년 2,444건에 비해 약 32배가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인터넷게임 아이템과 관련된 피해가 3만 5,162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1만 5,390건(20%), 명예훼손 및 성폭력 등과 관련된 피해 3,667건(4.8%), 개인정보침해 3,137건(4.1%), 불법사이트 운영 2,308건(3%), 불법복제 판매 1,064건(1.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00년 2,03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2만 3,03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자료출처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그림 7)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자료출처 :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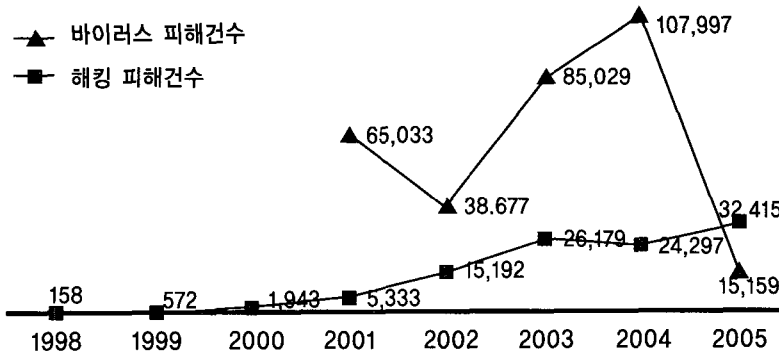
(그림 8)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현황

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6%), 고시·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5%) 등으로 나타났다(2005년 6월 기준). 따라서, 지난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및 ‘생체정보보호 지침’ 등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확대될 경우 개인정보침해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해킹에 의한 침해사고 피해는 32,415건으로 전년대비 1.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피싱·파밍 등으

로 인한 피싱경유지 및 홈페이지 변조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PWG(Anti-Phishing Working Group)의 피싱 사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9.6%)는 미국(27.9%), 중국(12.2%)에 이어 가장 많은 피싱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시스템이 피싱사이트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피싱수법이 더욱 교묘해짐에 따라 피싱·파밍에 의한 피해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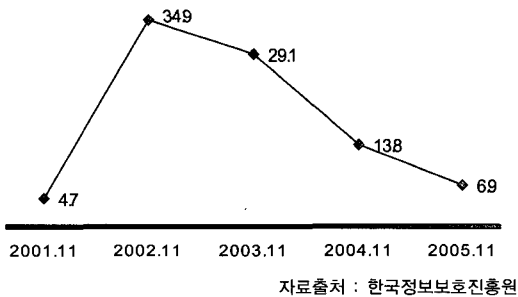
그러나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15,159건으로 전년대비 7배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센터 운영 등 24시간



자료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5. 12)

(그림 9) 해킹·바이러스 피해사고 현황

감시체계 확립, 신종 바이러스 진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스팸메일의 경우도 일반 이용자 1인당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이 2005년 11월 기준 6.9통으로 2002년을 기점으로 2년 연속 50% 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태료 상향조정, 스팸 차단 Best Practice 보급 등 정부와 민간의 스팸 대응 강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0) 1인당 하루 평균 스팸메일 수신량

한편, 우리나라는 정보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사회 부문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등 4대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1년 11.5%에 비해 2005년 6월 현재 28.9%로 2.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가구의 66.2%, 저소득층 가구의 53.4%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이 97%에 이르는 등 정보접근격차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지금의 53%에서 80%로 끌어올릴 방침이며, 평등한 정보이용 기회제공을 넘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

획이다.

V.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 및 과제

5.1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정책 개발

지난해 정부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제2차 정보격차해소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마련, 전자거래 해킹 대책 수립, 사이버 명예시민운동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전국 거의 모든 읍면동 지역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고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80% 수준에 육박하는 등 정보접근격차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명예시민운동을 발족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급속한 IT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각종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제·개정이 추진되었다. 2005년 6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결제대금예치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물을 비롯한 통신판매 업체는 2006년 4월부터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포털 게시판 운영자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및 명예훼손, 모욕 등 온라인상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

에관한법을 개정안'이 확정되어 2006년 상반기 중 본격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조항을 크게 강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민번호 대체 수단'과 '생체정보보호 지침' 등이 확대 적용될 계획이며, 해킹·바이러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보호 자동진단 S/W 개발·보급, 홈페이지 해킹 자동 탐지시스템 본격 가동 및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터넷 관련 법·제도·정책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다. 이제는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자율정화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인터넷 이용 주체 중심의 '자율규제 체제'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민·관 공동 규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와 20대 젊은층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어 십수년 내에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인터넷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책은 산발적이고 사후 문제해결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정책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업자, 이용자 및 관련 단체와의 공조 체계 확보를 통해 신설·수정된 정책에 대

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섬으로써 무지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네티즌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2 인터넷 이용 주체의 책임 의식 강화

우리나라는 1994년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0여년만에 성공적인 인터넷 대중화 시대를 열면서 '인터넷 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간의 양적 성장과정 속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불감증은 이미 만연되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공간에서 비대면성과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상대방을 향해 사이버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주요 포털이나 뉴스사이트를 중심으로 게시판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악플(악성리플)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터넷 문화 혼탁의 주범으로 '초딩(초등학교생)'을 지목하고 있으나,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생이 댓글을 올리는 비율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이 초등학교생 의식 수준의 성인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카메라나 카메라폰의 보급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직접 찍어 올리는 '직접사(직접 찍은 사진)'가 유행하면서 오프라인의 파파라치 피해가 온라인상의 '넛파라치'로 재현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직찍사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도 또 다른 사생활 침해 사례가 되고 있다. 2005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개똥녀 사건과 서울대 도서관 사건의 경우 개인

홈피나 블로그 등을 통한 사이버 테러와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잘못된 정보의 쓰레기나 악성 루머의 진원·확대재생산지 및 각종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게재된 정보나 의견에 대한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의식이 절실하다.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했다.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프라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용자 상호간에 기본적인 예절, 즉 네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 제고 못지않게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포털사이트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기존 매스미디어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포털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이용자 중심적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매스미디어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 이용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정화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자율정화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린이 이용자 대상의 다양한 윤리교육 및 인터넷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스스로가 스팸성 사용자나 유해한 정보 등을 신고하고 명예훼손 및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사이트와 이용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자,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VI. 맺음말

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일, 채팅 등 개인 삶에서부터 기업의 경쟁전략, 전자정부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그 어떤 것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디지털 혁명의 주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의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문제의 심각성에만 집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만 주력해왔다. 그 결과 정보화 사회 및 양산된 정보에 대한 불신과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교환, 의견 공유를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등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지식, 생활정보, 쇼핑정보 등에서 인생상담, 건강, 개인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거나 위로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나눔문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저해요인인 각종 역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동시에 인터넷의 순기능들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순기능 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2005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6
- [2] 2005년 한국인터넷통계집, 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11
- [3] 2005 한국인터넷백서, 한국전산원 2005. 5. 12
- [4] 건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정보통신부, 2005. 12
- [5]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2005. 10
- [6]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06. 1
- [7] 수치로 본 IT 2005,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략기획관실, 2004. 12. 27
- [8] 아이뉴스24, 따뜻한 디지털 세상, 안전한 인터넷 세상, 2005. 12. 31
- [9]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ctrc.go.kr/>
- [10]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http://isis.nic.or.kr/>
- [11]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송관호

- 1973년 ~ 1980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1981년 ~ 1984년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공학과 졸업 (공학석사)
- 1990년 ~ 1995년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졸업 (공학박사)
- 1996년 ~ 199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 수료
- 1998년 ~ 1999년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Maryland
- 1985년 ~ 1987년 데이콤(주) 미래연구실장
- 1999년 ~ 1999년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
- 1999년 ~ 2004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초대 원장
- 2000년 ~ 2000년 실버넷운동 운영위원장
- 2002년 ~ 현재 한국통신학회 이사(산학협동위원장)
- 2002년 ~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부회장
- 2003년 ~ 현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부회장
- 2003년 ~ 현재 URI표준화포럼 의장
- 2004년 ~ 현재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 2005년 ~ 현재 한국모바일학회 회장
- 2005년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자문위원
- 2004년 ~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